

최인훈 희곡 <한스와 그레텔>의 동화 수용과 형상화 양상

최두레*

<차례>

1. 서론
2. 동화의 비유적 수용
3. 동화 변용 속성의 형상화 양상
 - 1) 대결구도와 이분법 세계
 - 2) 회상구도와 이념의 충돌
 - 3) 독일과 한국의 유사성과 역사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최인훈이 희곡 <한스와 그레텔>에 독일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수용하여 이를 변용시켰다는 점에서 동화 수용 방식을 찾고 이를 통해 극에 형상화 된 서사 의도와 극작 전략을 살피고자 하였다. 극에는 동화의 특정 속성인 마녀의 숲이 비유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에필로그에 담긴 상징적 이미지는 극의 서사 의도를 암시하였다. 극은 한스의 경험을 토대로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적 역사를 이념의 충돌로 담고 있었다. 감옥을 공간적 배경으로 세상과의 단절이 강조되었으며, 인물들의 대결구도를 통해서 이분법적 세계가 가진 모순을 고발하고 있었다. 또한 한스가 회상하는 구도는 한스와 관계된 인물들을 통해 이념의 역사가 모순을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담고 있었다. 이렇게 이념의 충돌이 가져온 모순의 역사에서 한국의 비극적 현실을 읽을 수 있었다. 한국의 분단현실이 이념에 의한 희생의 역사였음을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라 할 수 있다. 최인훈은 극에 역사적 진실보다는 역사가 어떤 모순으로 굴절되었는가를 보이고자 하였으며, 굴절된 역사에 희생된 인간의 가치를 재고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비유적 수용, 이념의 충돌, 이분법, 회상구도, 분단역사

1. 서론

1970년대까지 소설가로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기면서 1970년대 ‘전후 최대 작가’라는 평을 받았던 최인훈은 1970년대 후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를 시작으로 1981년 <한스와 그레텔>에 이르기까지 총 7편의 희곡을 발표하였다.¹⁾ 그는 대부분의 희곡에 설화를 결합하여 변용극을 만드는 창작방식을 사용했다. 설화를 차용하여 또 다른 세계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설화에 환상, 이상, 꿈, 사랑 등의 환상적 요소를 결합시키고, 역사, 정치, 이념, 전쟁 등과 같은 현실의 영역을 삽입하여 독창적인 서사를 만들었다. 설화의 범주를 넘어 신화와 인간 영역을 통괄하는 창작으로 설화의 전통적 정서를 수용하였으며 신화적, 환상적, 역사적, 극적인 요소들을 결합하여 당대 사회관계를 극에 담아내었다.

최인훈의 희곡이 독창적이라는 중심에는 설화가 있다. 따라서 설화의 수용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연구의 중심을 이루었다. 민족의 비극적 심성을 바탕으로 한 전통 모티프가 소재로 활용되어 창조적 재해석이 이루어졌다는 전통극 계승 측면의 연구 성과가 있었으며,²⁾ 이와 더불어 변용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페러디 양상의 연구가 있었다. 페러디 연구는 당대의 지배적인 신념에 내포된 허위를 폭로하여 전통적 세계가 붕괴되고 비극적 현실의 반영이 있음을 밝혔는데,³⁾ 극이 설화와 현대를 아우르고 있다는 해석적 접근은 최인훈의 현실인식을 알 수 있는 성과였다. 연극

1)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현대문학, 1970),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세계의문학, 1976. 가을), 『봄이 오면 산에 들에』(세계의문학, 1977. 가을), 『둥둥 낙랑둥』(세계의문학, 1978. 봄), 『달아 달아 밝은 달아』(세계의문학, 1978. 가을), 『한스와 그레텔』(세계의문학, 1981. 가을), 『첫째야 자장자장 둘째야 자장자장』(문학과 지성사, 1992)

2) 김승옥, 『한국 현대희곡의 전통 수용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6.2.

3) 장혜전, 『설화소재희곡의 특성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0.12; 홍진석, 『최인훈 희곡 연구』, 우석대 박사학위논문, 1996.

적 특성과 관련되어서는 시와 극이 만나 문학적 연극성이 획득되었으며, 꿈과 시, 노래 등을 통한 상상력은 연극적 특성을 확대시킨 극작술이었다고 평가하였다.⁴⁾ 이와 같이 시극, 전통의 계승, 세계의 비극적 인식 등은 최인훈 희곡의 특성을 인정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범주 안에서 벗어났다고 거론되고 있는 극이 <한스와 그레텔>이다.⁵⁾ <한스와 그레텔>은 최인훈이 1981년 발표한 마지막 희곡으로 독일 그림형제가 지은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수용한 극이다. <한스와 그레텔>은 다른 희곡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의 희곡 대부분이 한국 설화를 차용하고 변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스와 그레텔>은 서양동화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또한 환상성을 가미한 독창적인 창작 방식이 아닌 사실적 접근 방식이라는 점과 토론적 대화와 긴 대사가 연극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인훈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일관된 문제의식이 ‘역사라는 집단적, 물리적 현상을 어떻게 인간의 의식 속에 수렴하느냐’라고 한 것처럼, 그는 인간을 역사나 정치에 의해 물리적으로 파괴당하는 비극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극이나 비극성을 깊게 알아내고 역사나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것이 작가의 의도라고 한다.⁶⁾ 이러한 맥락에서 <한스와 그레텔>은 최인훈이 쓰고자하는 주제를 가장 직설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논의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스와 그레텔>이 소설로부터 이어진 최인훈다운 희곡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전형적인 서사극 기법’으로 쓰였다고 보았다. ‘관념

극’으로 읽게 만드는 요인은 과거의 기억에 의지하는 정지된 시간과 단 일한 공간이며, 30년이란 시간의 삶은 ‘부조리 세계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라 하였다. 극은 간수 X의 일깨우기 역할로 교훈극적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⁷⁾ 또한 내용상 소설의 문제의식과 기법상 자기반영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에서 <한스와 그레텔>은 광장과 밀실의 조화로운 결합을 추구하는 자기실현적 의도를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한스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민족주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하였다.⁸⁾

이와 더불어 <한스와 그레텔>에 내재된 세계에 대한 인식을 최인훈의 작가인식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극이 세계에 대해 불확정성을 보임으로서 ‘최인훈의 정치적 허무주의의 수락’의 표현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소설에서 보였던 지식인의 유형이 다시 등장했으나 소설에 비해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유연해졌다고 보았다.⁹⁾ 이와 맥을 같이 하는 현실의 반영에 관심을 둔 연구에서는 극에 장치된 역사적 사실에 중점을 두고 세계역사의 사실과 허위가 정치검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며, 홀로코스트는 당대의 광주학살에 대한 현실의 인식을 보여주는 알레고리적 방식이었다는 견해가 있었다.¹⁰⁾

<한스와 그레텔>에 대한 연구는 전작들에 비해 많지 않다. 많은 연구들이 설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연극적 특성을 연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스와 그레텔>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거론한 것처럼 설화의 범주에서 벗어난 소재로 최인훈

7) 박미리, 최인훈 희곡의 연극적 고찰, 『한국극예술연구』 16, 한국극예술학회, 2002. 10.
 8) 조보라미, 최인훈 희곡의 연극적 기법과 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2.
 9) 이승희, 최인훈의 극작 여정, 그 보편성에의 유희과 정치적 무의식, 『민족문화사연구』 35, 민족문화사학회, 2007.
 10) 한재연, 『최인훈 희곡 <한스와 그레텔>의 필진성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10. 2.

4) 이상일, 극시인의 탄생,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 문학과 지성사, 1998, 양승국, 『최인훈 희곡의 독창성』, 『작가세계』 제4호, 1990.
 5) 양승국, 최인훈 희곡의 독창성, 『작가세계』 제4호, 1990. 110면. 그가 보여준 극작 기교들이 설화의 경우에만 빛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6) 중앙일보, 1981년 10월 27일 대담.

의 극작술 범주에서는 공통적 속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스와 그레텔>이 동화<헨젤과 그레텔>을 원작으로 했다는 점에서 페러디의 범주 안에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한스와 그레텔>은 페러디의 특성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한계가 있다. 관계되는 속성이 매우 미미하여 공통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는 최인훈 희곡이 그동안 보였던 창작방식과 <한스와 그레텔>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극의 소재가 역사적 사건이고, 주제가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여 다른 희곡과는 표현방식에서 차이를 드러내지만, 극이 원작이 있는 작품을 차용한 것이고, 이를 통해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인훈 전체 희곡의 공통적 속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따라서 동화의 변용담으로서 극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유적 속성의 이야기라는 점에 주목하여, 동화와 극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2장에서는 동화와 극의 플롯을 통해서 수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극에 수용된 속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그 속성은 최인훈이 극에서 의도한 세계사적 인식을 파악하는 단서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수용된 속성이 구체적으로 극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동화에서 변용된 상징적 의미가 서사 방식으로 극에 구조화 되어 있음을 밝히고 내포된 세계사적 인식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최인훈의 극 전략을 이해하고 극에서 의도하는 바에 대한 미세한 의미 찾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동화의 비유적 수용

최인훈이 독일의 그림형제의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극에 차용했음을 알 수 있는 단서는 많지 않다. 쉽게 알 수 있는 단서는 제목과 인물의

이름, 그리고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장면에 불과하다. 이 표면적인 단서로는 동화가 극에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소재와 장르 등에서 동화와 역사라는 간격이 너무 커 공통성이나 연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작품을 변형하는 의도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내용에 과격적 변화를 가함으로서 기존의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최인훈의 다른 극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물과 내용이 변형되었음을 짐작할 만한 단서가 들어있다.¹¹⁾ 그런데 다른 극과 다르게 <한스와 그레텔>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연상시킬 사물과 배경, 인물의 행위를 찾기 힘들다.

-헨젤과 그레텔-

- ① 가난한 나무꾼과 아내는 가난으로 숲 속에 두 아이를 버리기로 한다.
- ② 이를 눈치 챈 두 아이는 부모를 따라 숲으로 갈 때 자갈을 떨어뜨려서 집으로 돌아온다.
- ③ 다시 산 속에 버려질 때는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렸으나, 길을 찾지 못하게 되어 숲에 버려진다.
- ④ 숲에서 과자로 만들어진 집을 발견하고 들어간 오누이는 그 집 마녀에게 잡힌다.
- ⑤ 마녀가 헨젤을 가두고 살을 찌워 잡아먹으려 하고, 그레텔에게는 일을 시킨다.

11)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는 온달과 평강공주의 인물이 동일한 신분인 공주와 평민으로 등장하게 되며, 이들의 혼인도 설화에서 왕이 울보였던 평강공주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이야기 했던 '온달에게 시집보낸다'는 내용이 그대로 삽입되어 성사된다. 혼인이 극에서 결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보면 설화와 극의 관계는 매우 밀접함을 알 수 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에서도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고 심청이 팔려가는 주요 장면이 삽입되어 심청전의 변형극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⑥ 마녀가 헨젤을 잡아먹으려 하자 그레텔이 지혜로 마녀를 아궁이 속에 밀어 넣는다.
- ⑦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보물을 들고 집으로 와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된다.¹²⁾

-한스와 그레텔-

- ① 한스는 30년 동안 독일 전범자로 수감되어 있는데, X로부터 석방 소식을 듣는다.
- ② 한스는 유대인 학살에 대한 증인으로서 석방 조건인 침묵에 대해 거부한다.
- ③ 간수 X는 한스에게 여러 개의 자신, 부인과 한스, 한스와 간수 자신과의 관계를 들어 설득한다.
- ④ 히틀러와 유대인 학살, 자신의 임무와 나치당에 대해 회상한다.
- ⑤ 간수 X에게 솔로몬 재판을 비유하여 유대인의 학살은 연합군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다.
- ⑥ 장인 스토크만의 죽음을 회상하면서 스토크만의 우상이며, 신념이었던 러시아 공산주의의 허위적 이중성을 회상한다.
- ⑦ 진실, 평화, 정의에 대해 과거는 정당했는지에 대해 고심하면서 잊었던 사랑, 평화, 안식을 회상한다.
- ⑧ 역사적 증인으로서 한스로부터 걸어 나와 그레텔의 삶으로 향하기 위해, 석방조건을 수락한다.¹³⁾

동화의 배경이 기근에 시달리는 사회적 상황이고, 극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인물들은 다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표면적 단서로서 인물이 같은 이름으로 장치되지만 극에서 한스와 그레텔은 동화 속 인물을 상상할 만한 어떤 성격도 갖지 못한다.¹⁴⁾ 또한 제목이 주

12) 그림형제, 김영규 역, 『한스와 그레텔』, 『그림형제동화전집』, 현대지성사, 1999.4.

13) 최인훈, 『한스와 그레텔』, 『옛날에적에 휘어어 휘이』, 문학과 지성사, 1992.

14) 이름에서 주인공 한스 보르헤르트의 이름 '한스'와 성 '보르헤르트'는 각각 '어린 시

제를 대표하는 상징적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한 주제의식을 유추할 수 있으나, 공통된 의식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두 작품은 매우 다른 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표면적으로 장치된 제목과 등장인물은 두 작품의 관계성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보여주는 표시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스와 그레텔'이 인명이면서 제목으로서 대표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화 <헨젤과 그레텔>은 간과될 수 없다. 동화에는 버려진 남매가 마녀의 숲에서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공간의 설정이 두드러지며, 마녀라는 모티브를 통해 환상을 죽음으로 바꾸는 비극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극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플롯을 비교해 보면, 두 작품의 틀은 유사한 일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 들어가기의 구조가 유사하다. 동화 한스와 그레텔이 숲으로 들어가 갇히게 되는 것처럼 극에서 한스가 세상과 단절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다. 한스와 그레텔이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과의 격리를 의미하고, 들어가게 될 공간이 중요한 장소로 부각된다. 둘째 빠져나오기 구조는 마녀의 숲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갇힌 공간에서의 탈출과 해방이 유사하다. 동화 속 남매는 아버지에게로 회귀하고 극의 한스는 그레텔에게 회귀한다. 빠져나오는 것은 고난을 극복하고 안식을 찾게 되는 것으로 탈출구로서의 빠져나오기라 할 수 있다. 즉 동화와 극에서 중시되고 있는 것은 들어간 공간과 빠져나오기 전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질의 순수한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상징한다고 보았다. 조보라미, 『최인훈 희곡의 연극적 기법과 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95면.

-동화 -		-극-
남매		부부
숲 속에 버려짐	⇨	감옥에 들어감
마녀의 과자 집		감옥에서 30년
부모에 대한 믿음과 지혜		나찌당에 대한 신념과 그레텔의 사랑
숲에서 나와 아버지에게 돌아감		감옥에서 나와 그레텔에게 감

<한스와 그레텔>에 강조되어 수용된 속성은 그들이 들어간 공간에 있다. 마녀의 집이 가진 환상과 거짓의 속성은 극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동화 속 환상은 감옥에서 30년을 버티면서 지켜온 정의에 대한 환상이다. 그리고 환상은 극에서 이념의 이중성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갈등은 숲에서의 고난으로 비유될 수 있다. 동화와 극에서 한스와 그레텔은 고난에서 해방된다. 극복 방식은 다르나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처럼 동화에서 중심 공간이 되는 숲의 이미지 차용은 표면적인 유사성보다는 특정 속성에 의한 변용이라 할 수 있다.

인물들에게서도 공통된 속성이 발견된다. 극과 동화의 한스와 그레텔은 가난의 사회, 이념의 전쟁이 만든 상처로 존재하는 인물이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로부터 버려지고 상처받았는데, 버려진 공간인 마녀의 집과 감옥은 고난과 혼란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진실이 은폐된 곳에서 위협과 부조리한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갈등과 고난, 그리고 성숙을 겪는다. 이러한 동화와 극의 유사한 속성은 극에서의 한스가 당면한 상황과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에펠로 그에 나타난 이미지 장면에서 극에 비유된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스와 그레텔(두 사람 모두 어린이 옷에 어린이 가면을 썼다)
손을 잡고 나온다 그레텔 바구니를 한쪽 팔에 걸고 있다. (스피커의 소리)

“어느날, 우리는 버섯 따러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정에서 줄에 매단 나무(장난감)들이 내려온다.
“한스 나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이상한데, 점점 모르는 길이야”
나무(장난감)가 하나, 둘, 올라가고 대신에 줄에 매단 해골이 하나, 둘 내려온다.

“한스!” “그레텔!” 해골 사이를 빠져 달아나는 한스와 그레텔, 그레텔을 잃어버리고 혼자 헤매는 한스, 해골들이 부딪치는 소리, 부엉이 울음 소리, 마침내 온 무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해골들에 파묻혀버리는 한스, 그러자 해골 더미 위에 나치 제복을 입고 히틀러의 자세로 우뚝 서 있는 한스 보르헤르트

(혹은 무대 뒷벽의 스크린 조명이 들어오면, 화면 넓은 풀밭 화면의 왼쪽 앞에 큰 보리수가 서 있다. 멀리서 춤추듯 걸어오는 남녀 한스와 그레텔 보리수를 끼고 돌아간다. 쫓고 쫓기는 그들 음악 「보리수」 보리수앞이 모두 해골이 된다.

목장의 풀이 모두 해골이 된다 도망치는 그들 발길 앞에 솟아나는 해골, 그레텔을 잃어버리고 혼자 헤매는 한스, 마침내 한스 해골 속에 파묻힌다. 그러자 해골 더미 위에 나치 제복을 입고 우뚝 서 있는 한스 보르헤르트 스크린 사라진다)

어두운 조명 속에 마루에 쪼그리고 엎드린 보르헤르트(367면)

최인훈은 에펠로그의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서 동화와 극을 동일시하도록 만들고, 극 전체에서 비유된 의미를 알리고 있다. 한스와 그레텔이 어린이 가면을 쓰고 장난감 숲으로 들어가는 것과 성인 한스와 그레텔이 보리수나무를 끼고 돌아가는 장면은 동화와 극이 동일시되었음을 보여준다. 어린 아이와 성인, 장난감과 보리수는 두 한스와 그레텔이 꿈꾸던 안식과 평화의 이상적 공간으로 그리고 있으며, 그들이 들어가는 문은 그런 꿈과 환상으로의 내디딤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환상적 공간이 해골 무덤으로 변함으로서 평화와 안식은 깨지고 죽음과 공포에 직면하게 되

는데, 이는 염원의 사라짐과 망각이 생성되는 공간의 표상이며, 인간의 죽음 위에 존재하는 허상임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허상은 한스와 그레텔이 길을 잃게 되는 방향의 상실로 드러나면서 진실, 신념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⁵⁾ 혼란의 공간에서 겪는 두려움, 공포, 방황은 공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준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는 어디로 가야할 지 안다는 것이며 혼란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다. 그러나 최인훈은 방향을 잃은 한스를 해골 무덤에 파묻고 그 무덤 위에 군림하게 된 한스¹⁶⁾를 보여줌으로써 허위의 공간에서 신념을 지키는 아이러니한 인간으로 표상하였다.

-동화-	-극-
마녀의 숲	히틀러의 사상 누각
마녀	히틀러
과자	사상과 신념
살찌워진 한스	나치 제복 입은 히틀러 자세의 한스
마녀에게 희생된 아이들	유대인 학살 ¹⁷⁾

에펠로그는 동화와 관련시킬 때 상징적 이미지가 구체화 된다. ‘나치 제복을 입은 히틀러 자세로 우뚝 선 한스’를 중심으로 히틀러, 나치즘, 그리고 해골무덤을 상징할 수 있는데, 이를 동화 숲의 속성과 결합시키면,

15) 최인훈이 그의 극작 여정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세계의 불확정성이었다. 이승희, 「최인훈의 극작여정, 그 보편성의 유희와 정치적 무의식」, 『민족문학사연구』, 2007, 272면.
 16) 해골 더미 속에 파묻히게 되는 한스는 전쟁의 주체가 되어 정치적인 자아 보르헤르트를 상징한다. 정수진, 「최인훈 희곡의 탈식민성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69면.
 17) 에펠로그의 상징적 의미들은 동화의 숲과 관계있다. 따라서 동화의 숲과 관련시킬 수 있는 극의 상징물을 구체화함으로써 비유된 의미를 확장 시키고자 하였다. ‘나치의 제복을 입고 히틀러의 자세를 취하는 한스’를 중심으로 나치의 제복과 히틀러는 한스를 해골더미 위에 군림하도록 한 이념, 사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마녀의 숲은 해골무덤에서 나치즘이 쌓아 올린 죽음의 사상누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히틀러는 나치즘을 표상하는 인물로 동화 속 마녀와 관련시킬 수 있는데, 마녀는 숲을 해골로 만드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유추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해골들은 히틀러의 사상누각에 희생된 인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 희생된 인간은 극에서 유대인 학살로 확대시킬 수 있다. 이처럼 <한스와 그레텔>은 동화의 비유적 의미 차용과 이의 변용으로 수용되었으며, 세계사에 대한 모순을 한스를 중심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3. 동화 변용 속성의 형상화 양상

최인훈이 <한스와 그레텔>에 의도한 의미가 동화에서 비유된 속성¹⁸⁾이라 유추할 때, 극에 구도화 된 이야기는 비유된 속성에 대한 서사적 표현이 된다. 즉 동화의 상징적 속성은 극에서 암시적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표면에 드러나는 극은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전개시킨 것이다.

‘제복입은 한스’의 경우 한스가 히틀러의 사상에 전도된 과정과 그 사상을 신념으로 지키는 과정으로 드러난다. 극은 ‘제복 입은 한스’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혼돈하고 갈등하고 자각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해골 무덤’으로 상징된 히틀러와 나치즘은 한스와 관련된 사건들을 통하여 이념과 역사의 모순으로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된 개별적 사실로 장치하는 극작 기법이 구사되고 있다면, 극에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18) 비유란 본래 의미를 수사학적 기교를 통하여 표현 양상을 달리하는 것이다. 즉 피상적 구도와 의미에서 본래의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다. 극에는 에펠로그의 상징적 이미지가 서사 방식으로 구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대결구도와 이분법 세계

최인훈은 <한스와 그레텔>에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공간 구성 방식¹⁹⁾을 차용하고,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를 혼란으로 빠져 들게 한 이념의 불확정성을 구조화 하였다. 실제로 히틀러의 비서였고 나치당의 수뇌부인 ‘루돌프 헤스’가 전쟁범으로 30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 감금당했던 사건을²⁰⁾극에 역사적 사건으로 장치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건과 극은 완전히 일치 할 수 없다. 사건을 두고 펼쳐지는 관계에서 허구적 사건들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에서 실제와 허구의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최인훈의 극작술로 보아야 한다. 실제 사건을 소재로 취한 것은 상상력에 치우쳐 허구성이 강해질 때 역사적 개연성이 약해질 수 있는 우려의 반영일 것이다. 주제가 세계사에 대한 부조리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허구적 가공 사건이 아닌 실제 사건이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건에서 헤스는 독일 전령사의 역할로 연합군 기지에 들어갔다 가 잡혀 전쟁범으로 30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있었다. 헤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진실을 알고 있는 자로 그가 알고 있는 사건의 전말과 진실은 매우 역사적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인물 ‘헤스’를 ‘한스’로 하여 극의 중심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한스’는 세계사의 문제를 함의하고 있으면서 고발하는 주체가 된다.

이렇게 한스와 역사를 결합시키는 극작법은 세계 분쟁의 역사를 담고

자한 목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극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작가의 의도에 맞게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극작 전략에서 강조되어 나타나는데, 최인훈은 공간적 구도와 인물을 대조 방식을 극대화 시켜 한스가 어떤 갈등을 감내하고 있는지 구체화 하고 있다.

첫째, 감옥과 세상이라는 공간적 대비 방식으로 이분법 세계를 표출하고 있다. 감옥은 한스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배경이면서 회상이 가능한 공간이다. 실제로 감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면 모든 주요 플롯을 회상으로 처리하기 힘들다. 감옥은 외적으로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면서 한스의 실존적 고민을 감내하는 고립 공간이다. 그리고 세상은 한스에게 죄를 부여한 원인이 존재하는 공간이면서 자유의 공간이다. 두 공간의 분리는 외적, 내적 단절을 강조하여 세상의 문제로 확대시키는 공간적 기능과 플롯의 기능을 한다. 특히 내적인 문제를 함의하는 공간으로 설정되는데, 감옥에 갇힌 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세상의 억압은 단순한 죄의 범주를 벗어난 격리와 소통의 문제로 확대된다.

보르헤르트 나는 거부한다. 나는 침묵을 선서할 수 없다.
 X 사실상, 당신이 선사하거나 하지 않거나 당신의 말을 세계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보르헤르트 당신들이 나와 세계 사이에서 물러나지 않을 테니까
 …(중략)…
 보르헤르트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가두어두는 이상, 나는 그 사실을 세계에 알리지 못한다는 말이겠지. 그것은 당신들이 할 일이고, 그러나 내가 거기에 협조할 수는 없소, 나는 내 목숨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알고 있는 일을 세계에 말해야 할 의무를 버리지 않겠소, 내가 침묵을 선서하고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살고 당신이 여전히 나를 방문하고(격분해서) 그것을 당신들은 석방이라고 부르겠소?(331면)

19) 동화의 중심 공간인 마녀의 숲과 그곳에서의 왜곡된 상황의 차용을 의미한다.
 20) 루돌프 발터 리하르트 헤스는 나치당의 부총통이었다. 41년부터 87년까지 종신형을 선고받고 베를린 슈판다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1987년 94세에 죽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평화타협안을 전달한다는 이유로(1941년 5월 10일) 단독으로 영국에 들어갔으나, 전쟁포로로 잡혀 전쟁범으로 복역하였다.
 샤를르 A. 가벨, 여승구 역, 『루돌프 헤스와의 금지된 대화』, 1977~1986, 삼신각, 1989, 449~463면.

공간에서의 침묵은 소통의 단절을 극대화한 설정이다. 한스를 가두고,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강압의 주체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러한 주체와 대적 관계에 있는 한스는 침묵에 저항하는 객체의 표상이다. 감옥이라는 공간은 한스의 행위에 억압과 고통을 쉽게 가할 수 있는 곳으로, 한스의 무력감과 주체의 폭력성을 강조하는 극적 장치가 되었다. 침묵에 대한 진실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감시와 격리, 그리고 함구와 거짓이라는 행위에 저항하는 한스는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무기력하고 존재감을 상실한 인간으로 강조된다. 이처럼 감옥과 세상이라는 단순한 대비 공간은 거짓과 진실의 경계, 개인과 국가의 관계, 신념과 허상의 차이이라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 이분법 세계를 환유적 방식으로 보여준다.²¹⁾ 한스는 갇힌 자이며 간수 X는 가두는 자이다. 이들은 세계 역사의 적대적 관계를 피상적으로 보여주는 구도로서 세계의 문제를 함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스가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던 30년이란 시간은 한스 스스로 신념에 던진 상징적 시간이다. 한스가 침묵을 수용하면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신념으로 30년을 살아냈기 때문이다. 신념은 나치당이 유태인 학살의 주동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으로, 한스는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의 이념에 경도된 독일의 민족주의를 대변하고 있다. 이와 대적하고 있는 간수 X는 전쟁의 승리국인 연합국을 대표한다. 한스에게 침묵이라는 진실 은폐를 강요하고 자유를 억압하면서 한스의 잘못된 신념을 일깨운다. 간수 X는 한스에게 물리적 통제뿐 아니라 이념의 한쪽 끝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쪽을 보도록 유도한다. 즉 적대관계에 있으나 적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모순을 지적하는 관찰자의 역할을 한다.

21) 환유는 하나의 인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념적 사상으로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사이의 지시관계나 대신하는 관계로 사용된다. 이동현·이종열, 『고유명사의 비유적 의미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어어미학회, 2008, 137면.

보르헤르트 나는 나치당의 명예를 지키겠소.
 X 사탄의 명예를?
 보르헤르트 한 사람만이 사탄이었소.
 X 그가 사탄이 되게 도와준 사람들은?
 보르헤르트 나치당원의 대부분은 그 사실을 몰랐소, 나치당의 대부분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나라를 위해 싸웠듯이 자기 나라를 위해 싸웠을 뿐이오.
 X 6백만의 유태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보르헤르트 (침묵)
 보르헤르트 6백만의 목숨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소.
 X 당신들이 원자탄을 만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했다는 말이지요?
 사탄이 볼모를 잡고 있는 것이 두려워서, 만일 우리가 기다렸다면 당신들은 원자탄을 만들었을 테고 그때에야 말로 당신들은 인류를 볼모로 잡을 수 있었겠지요.(351면)

간수 X는 한스와의 피상적인 관계에서 확대되어 한스를 변화시키는 제언자로 기능한다.²²⁾ 유태인 학살이 진행될 계획을 몰랐다는 한스에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한스의 신념은 사탄이 쌓은 허상이라고 한다. 유태인 학살을 담보로 한 나치당의 제안은 또 다른 음모에 불과한 거짓일 수 있다고 폭로한다. 이렇게 한스와 간수는 세계 전쟁을 일으킨 주된 국가의 면모를 담고 있는데, 적대적인 관계로 갈등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한 요인을 환기시키고 재고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것은 갈등의 전개를 통해 이분법적 세계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양극단의 이념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를 한스와 간수의 관계로 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간수 X가 자신과 한스

22) 박미리, 『최인훈희곡에 대한 연구적 고찰』, 『한국극예술연구』 제16집, 2002.9, 260면.

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X 보르헤르트 씨, 30년간 내게 있어서의 남이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그 동안의 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동안의 나 말고 다른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저의 유일한 나였습니다. …(중략)…
누가 누구의 죄수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오래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석방을 희망합니다. 당신은 당신과 한 몸인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353, 354면)

간수 X는 한스와 존재가치를 일치시킴으로써 역사의 희생적 인간이었음을 피력한다. 간수에게도 30년이라는 시간에 한스를 빼고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수와 한스는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이를 문명, 사상, 정치에 희생된 노예로 비유하고 있는데, 바로 한스와 간수 자신이 유럽문명, 독일의 나치즘, 러시아 공산주의에 희생된 민중들이었음을 각인 시킨다. 세계가 힘의 논리로 분절될 때,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자아를 상실한 인간으로서 한스와 간수는 서로를 동일시하고 조력하는 것으로 세계에 항거한다.

이외에도 극에서 이분법으로 분절된 형식과 의미는 다양하게 표면화 되는데, 유태인과 나치당이 소통할 수 없었던 단절, 히틀러를 선택하면 그레텔과 결혼을 할 수 없는 세상은 이분법이 낳은 문제를 비유적으로 고발한 장치들이다. 이념과 사랑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게 하는 부조리한 세상은 개인에게 가해진 폭력으로 고발되고 있으며,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세상에서 거짓이 진실이 되는 모순은 이분법으로 단절된 세상에서 필연적임을 폭로한다. 세계가 이분법의 원리에서 어떤 고통의 역사를 써왔는지 보여준다고 하겠다.

2) 회상구도와 이념의 충돌

극은 한스가 과거를 회상하는 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회상구조는 단순히 현재를 있게 한 과거를 보여주는 시간적 의미를 벗어나 극의 중심 의미를 보여주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²³⁾ 세계를 혼란의 상황으로 만든 이유를 한스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담고 있는데, 한스의 경험은 역사에 대한 고발이며, 세계 혼란의 모순을 드러내는 비유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히틀러와 나의 임무, 아버지를 사형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나치당의 신념을 믿는 나, 공산주의 딸인 그레텔과의 결혼 등의 이야기는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 세계 역사가 서로 얽히게 된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히틀러 나는 비상 카드를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 (히틀러의 얼굴에만 창백한 조명) 우리는 전유럽의 유태인들을 억류하고 있다. 연합국이 휴전에 동의하면 나는 유태인들을 석방하겠다. 그들이 거부하면 나는 유태인들을 모두 처형하겠다.

보르헤르트 총통 각하!

히틀러 유태인들은 세계의 공적이다. 독일 국가의 암이다. 그러나 휴전에 동의하면 그들 전원을 석방한다. 보르헤르트, 즉시 전선을 넘어가서 적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라. 그들이 동의할 때까지 나는 차례로 유태인을 처형하도록 명령하겠다.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번에 대량을 집단적으로 처형하겠다. 그들이 대답을 늦추는 시간에 유태인들의 피는 계속 흐를 것이다. 그들이 유태인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응할 것이다.

23) 최인훈은 단순한 회상이나 심리적인, 혹은 암시적인 시사에 그치지 않고, 연극적인 효과를 창조했다. 최준호, 아름다운 언어로 구축된 최인훈 희곡의 연극성, 『시학과 언어학』 1권, 2001, 149면.

보르헤르트 총통 각하, 우리는 세계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히틀러 방법이 없다. 그들도 그들의 식민지를 피로 얻었다. 지금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어디 있는가? 독일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가진다. 독일은 현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여 독일 영토 안으로 후퇴한다. 독일 국경은 지켜진다. 이것만이 조건이다. 보르헤르트, 너와 나만이 이 교섭을 알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다. 즉시 출발하라.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다. 즉시 출발하라.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유대인의 피는 한 방울도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342-343면)

첫째, 한스와 히틀러를 통해 국가 민족주의의 이념적 모순을 드러낸다. 한스가 히틀러에게 연합군과 협상하는 임무를 부여 받게 되는데, 그것은 독일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유대인 학살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한스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범자로 잡혀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끝까지 연합국으로 전향하지 않았다. 그는 전향 회유에 응하지 않고 30년 세월이 넘도록 나치당에 대한 신념을 지켰다. 이 사건은 유대인 학살을 둘러싼 독일과 연합국의 진실 공방으로 나타나지만 가장 사실적인 장치는 이념의 충돌로 유대인 학살은 자행되었다는 것이다.

세계 이권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이 패전국의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히틀러가 존재하게 된다. 히틀러는 유럽문명의 힘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는 숙명의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당위성에 집결된 나치당은 독일을 재건하려는 목적으로 뭉치게 된다. 그러나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는 인종차별을 대척하여 이루어야 했기에 죽음의 역사를 만들고 만다.

유대인 학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그 진실을 알 수 없다는 논란을 담고 있는데, 극은 진실 공방을 통해 유대인 학살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누구도 유대인의 팔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비유된 독일과 연합국의 책임 문제는 탐욕과 죽음을 동반

한 폐허의 역사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둘째, 스톡홀름과의 사건은 공산당과 나치당이 대립하는 역사를 담고 있다. 한스는 아버지가 독일 공산당이었으나 스파이로 몰려 러시아 공산당에게 사형당하고 어머니마저 죽음에 이르는 비극을 경험한다. 이 사건은 한스가 공산당을 등지도록 하는 경험의 표출이나 공산당이 정치이념으로 인간에게 가하는 횡포를 폭로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에 스톡홀름이 나치당의 폭력에 당했던 사건이 언급되는데, 스톡홀름이 불구의 몸이 된 원인이 나치당의 살육과 파괴였음을 드러낸다. 이 또한 나치당이 표면적으로 독일국민을 대표하는 사상을 표방하나 정치적 목적으로 노동자에게 가해진 나치당의 위선적 행위를 폭로한다. 이처럼 한스를 매개로 하여 공산당과 나치당의 횡포를 보여주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간보다 사상을 우위에 놓은 이념의 이중성에 대한 폭로라 할 수 있다.

보르헤르트 나는 당의 지도자가 사탄에게 영혼을 판 값을 치르기 위하여 갇혀있고 스톡홀름씨는 증거 없이도 믿던 이념을 높은 동지들이 악마와 흥정한 것이다. 역사에 예누리가 생기는 것은 높은 동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역사의 이름으로 장부책에 계산했기 때문이다. (360면)

한스의 이념, 스톡홀름의 이념은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이념의 폭력의 희생자로 그려지고 있다.²⁴⁾ 한스는 사탄에게 영혼을 판 것이고, 스톡홀름도 장부책에 계산된 이념을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극은 인간이 자신을 지탱하는 신념이 얼마나 큰 오류의 가운데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상의 본질은 인간에게 이상적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데 그

24) 이테올로기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지배계층의 이익에 부합되는 모습으로 보도록 강요하는 허위의식의 형태이다. 억압을 합리화하는 지배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M. 크렌스톤, 이적석 역, 『이테올로기의 이해』, 민족문화사, 1985, 16면.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었고 이상적 가치는 훼손되어, 그 신념을 지키려는 인간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참담한 고통임을 보여준다. 극은 이러한 희생과 연결된 또 하나의 모순을 보여주는데, 유대인의 장부책에 비유된 자본주의의 탐욕적 역사이다.

셋째, 유대인의 장부책에 대한 회상으로 자본주의의 횡포와 부당함을 폭로한다.

보르헤르트 인간은 눈물이 어찌 연기처럼 스러지고만 말 것인가?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가슴 깊이에서 그 크낙한 장부를 믿었지. 저 별자리보다 더 큰 장부책을. 만 년, 십만 년, 백만 년, 아니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믿어온 그 장부책의 존재를, 그 장부책의 존재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괴로움은 비롯되었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별의 금박을 입힌 그 커다란 장부책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부책과, 러시아인들의 저 신비한 핏빛 장부책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꽃과 새와 나비와 보리수 가지의 새똥 무더기와 마이네케 여우와 딸기와 버섯과 거지 하인리히와 교회당 종소리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지. 하늘의 커다란 장부책 대신에 유대인들과 러시아인들의 장부책에서 셈을 맞추기는 정말 어려웠지. …(중략)… 사람들은 미치게 되었지. 장부책을 가진 자들도 미치고 셈을 맡긴 사람들도 미치고 누구도 아무도 믿을 수 없이 되고 서로 사람을 값으로 매겨야 하는데 아무도 그가 숨긴 값을 모르므로 그를 셈할 수 없고 거짓말 셈인 줄 알면서도 장사는 해야 하고 암시장의 셈속에는 또 다른 암시장의 셈이 있고. 그릴 때 나치당이 등장했지.(346면)

한스의 신념이 필연적으로 생성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로 회상된다. 독

일이 자본주의에 절망하는 역사가 크나큰 장부책으로 비유된다. 하인리히의 한숨과 너털웃음까지를 기록하는 장부책, 백만 년 동안 사람들이 믿어온 장부책은 하늘의 크낙한 장부책이 아닌 유대인의 장부책이며, 러시아인들의 핏빛 장부책이었다. 독일은 하늘과 땅과 강과 숲이 모두 그들의 장부책이 되었다고 폭로한다. 그리고 독일 나치당이 그 부당함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는 점을 들어 나치당의 신념과 독일의 비극을 옹호한다. 유대인의 학살과 맞서는 유대인의 장부책은 유대인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에서 확대되어 나타난다.

X 유럽문명은 노예 사용자의 문명입니다. 우리는 노예들의 마음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당신네들의 철학은 노예들을 화나게 합니다. 러시아인들의 철학은 노예들을 미치게 합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354면)

유대인은 유대인들의 주인으로 비유된 유럽문명의 희생물로 비판되고 있다. 착취와 분배의 모순이 이념이라는 사상으로 인간을 조종하는 세상의 이치에 대한 부당함을 드러내는 비유적 언급이다. 독일을 지키기 위한 나치당은 히틀러와 더불어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탐욕은 유대인의 학살과 무관하지 않은 거대 문명국의 횡포이며, 노동자를 앞세운 공산주의의 지배 욕구는 장부책과 협상하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이처럼 회상구조는 세계 이념의 혼란과 국가의 탐욕으로 빚어진 오욕의 역사임을 고발하는 사건들로 전개되었다.

한스는 유대인 학살이 연합국과 독일 모두가 관계된 행위였음을 인식하고, 나치당의 선택이 그레텔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잘못된 이념임을 깨닫게 된다. 세상은 이념들의 부딪힘으로 혼란했고 탐욕의 역사로 인간의 가치가 파괴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유대인 학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접근이었으며, 독일의 유대인 학살이 결코

독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들의 제국주의와 식민지 쟁탈 전쟁, 그리고 그것에서 소외된 국가의 살아남기였다는 세계정세에 대한 표출이라 할 수 있다.

3) 독일과 한국의 유사성과 역사

<한스와 그레텔>은 독일동화, 독일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이라는 공통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인훈이 원작을 변용하는 극작술의 본질은 변용을 통해 다른 의미를 담고자 한다는 점에서 극의 배경이 되는 독일을 벗어난 범주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독일과 한국이 제 2차 세계 대전으로 분단을 겪었다는 공통점과 분단을 감내해야 했던 현실의 고통은 독일과 한국을 유사한 관계로 볼 수 있게 한다.²⁵⁾ 이것은 독일을 중심에 둔 세계사의 혼돈과 탐욕의 전쟁사가 한국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작가의식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극에서 독일은 세계사의 문제 중심에 있다. 독일의 나치즘이 생성되고 독일이 민족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념의 모순들을 폭로한다. 독일은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이념이 독일 민족주의였으며, 독일을 위협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나치즘의 선택은 불가피 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의 도발국인 독일의 역사에 대해 당위성을 보이고 있다.

극에서 독일이 정당화되고 있는 점은 독일의 문제를 한국의 문제로 유추할 때 충돌하게 된다. 실제 역사에서 독일의 역사적 책임이 어떠한가

25) 한국과 독일은 1945년 식민지와 독재에 해방된 이후 자유진연과 공산진영에 의한 분할점령상태로 분단되었다. 독일은 저항민족주의로 강한 독일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의 민족주의였고, 한국은 식민국가의 해방을 목표로 한 단일 민족국가 건설이었다. 그러나 독일과 한국은 냉전이라는 세계사의 조류 앞에서 이념이 다른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었다. 김수자·오향미, 『근대국가 건설기 민족주의의 변형과 굴절』, 이화사 학연구소, 2008, 73면.

에 대해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독일은 전범국이고 한국은 희생국이라는 사실은 독일을 한국과 동일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극의 허구성은 문학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극을 토대로 현실 인식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문제에 부딪힌다.

그러나 극이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역사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극은 독일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스를 주축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한스는 히틀러와 나치즘의 관계를 분리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히틀러로 국한 시키고 있다. 즉 독일의 문제는 전범국이 아닌 나치즘이라는 이념에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극이 의도하는 바가 독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을 둘러싼 이념들의 충돌과 그로 인한 전쟁과 희생을 담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에 함의된 독일의 문제를 한국의 문제로 가져 온다면, 한국이 감내해야 했던 이념으로 인한 상처와 희생의 역사로 볼 수 있겠다. 제국주의에 고통을 당했던 식민지 국가로의 역사,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념의 충돌이 빚은 분단의 역사를 이념의 문제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극에서 독일과 한국을 비유하게 하는 인물인 한스는 분단역사가 낳은 비전향자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또한 독일의 한스를 전범국의 수뇌부로 본다면, 한국의 비전향자로 인식하는 것에 문제를 노출한다. 그러나 극에서 한스는 전범국의 가해자가 아닌 전범국의 문제를 자각하는 인물이다. 한스가 자신의 신념이 환상이었음을 자각하는 순간 전범국의 가해자가 아닌 세계사의 희생적 인물이 된다. 그리고 감옥을 떠나 그레텔에게 가는 순간 이념의 허상에서 벗어난 개인으로 환유된다. 이러한 극의 의도로 볼 때 한스는 모순된 이념이 만들어낸 피해자로서 한국의 비전향자의 비극적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보르헤르트 내 자신에게 휴식을 주자? 이 손을 깨끗하게 지키자고 한

것이 잘못이라고? 이 손이…… 이 손이…… 사랑은…… 사랑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을까? 사랑이란 다른 사랑을 죽인 피 묻은 손으로만 얻어지는 그런 것이었을까? 그것은 언제나 죄의 과실이었을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30년이나 이렇게 생각해왔는데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지 않는가? -나에게는 이럴 수 있는가? 그렇다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30년이나 이렇게 철저히 생각해도 아무것도 확실해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렇게나 산다는 말이 되지 않는가? 아무렇게나, 오, 아무렇게나라니! 모두 그렇게 살고 있던 말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은 지탱해왔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 감방을 나가야 한단 말인가? 아무 믿음 없이 30년을 버려야 한단 말인가?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시작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적어도 그때는……(365-366면)

한스가 자신의 신념에 회의하고 개인을 삶을 되찾게 되는 것은 비전향자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이다. 한스의 혼란은 전쟁 후의 상실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스에게 가해졌던 이념의 폭력은 개인의 존재 가치는 사라졌다는 의식의 표출이다.

극은 개인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제시한다. 세상은 개인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도 없다는 점을 반복한다. 사상으로 지탱했던 시간들은 혼란한 세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고뇌와 희생의 시간은 결국 아무렇게나 살았던 시간으로 인식된다. 한스는 전쟁의 탐욕과 역사의 모순 앞에서 허무함을 인식하는 존재이며,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피로 물들어야 하는 역사의 희생물로서 무력감을 드러낸다. 전쟁이 끝나고도 존재하는 이념의 상처를 한스를 통해 보이자 했다면 비전향자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최인훈이 전작의 다른 희곡들과 다르게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창작한 <한스와 그레텔>은 일반적인 연극적 기법을 벗어난 극이며, 단조로운 플롯은 관념적이고 인물은 역사에 존재하는 인물로 창조적 인물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여 극 연구 전반에서 소외되었다. 그러나 <한스와 그레텔>은 그동안 최인훈이 천착한 역사와 이념이라는 측면을 가장 직설적으로 드러낸 극작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문제를 이념의 모순과 이들의 충돌로 파악하고 구조화 시켰다. 그리고 극에 개인의 경험과 역사적 사건을 결합시켜 세계사를 재고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 극의 주체인 ‘한스’를 실제 역사에 존재하는 ‘루돌프 헤스’로 설정하여 사실과 상상을 결합하였는데, 실제 인물과 사건을 주된 서사로 설정하여 세계사의 모순에 당위성을 확보하고 ‘루돌프 헤스’를 중심으로 독일이 처한 상황을 세계의 인식문제로 끌어 올렸다.

<한스와 그레텔>은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특정 속성을 비유적 의미로 수용하였다. 표면적으로 동화와 극은 소재, 인물, 주제 측면에서 매우 거리가 멀었다. 동화의 수용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제목, 인물, 프롤로그, 에필로그였으나 제목과 인물에서 어떤 관련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제목이 극중 인물로 되어 있는데, 동화와 극의 인물이 아이와 성인이라는 차이 외에 남매와 부부라는 상이함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 안에 장치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동화 차용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들어가기와 빠져나오기의 구성이 극에 장치된 것이다. 마녀의 숲과 감옥이라는 공간이 공통된 속성을 가지도록 수용되었다. 마녀의 숲에서 감옥으로 그리고 히틀러의 사상누각으로 비유되었으며, 제목 입은 한스는 히틀러의 사상에 경도되어 굴절된 신념의 인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신념의 불확정성과 허구성을 비판하는 것으로 유대인 학살 위에 세운 신념임을 드러냈다. 이렇게 에필로그에서 비유적으로 보여준 의미들

은 동화의 변용 속성으로서 극에 형상화되었다.

최인훈은 동화의 속성이 수용된 틀 안에 역사적 사건을 장치하여 이념의 충돌과 모순적 행위를 구조화 하였다. 이념의 충돌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대결구도를 사용함으로써 이분법 세계가 가져온 소통과 단절의 문제를 강조하였다. 세상과 감옥의 단절을 개인과 국가의 소통부재, 거짓과 진실의 경계, 신념과 허상의 이중성으로 확대시켰으며, 이념을 매개로 자행된 격리와 억압을 드러내었다. 인물의 대조적 구도는 역사의 모순을 고발하고 이를 깨우치게 하는 긴밀한 관계로 장치되었는데, 한스와 간수 X는 독일과 연합국이라는 적대적 관계로 표상되어 전쟁사의 원인을 보여 주었으며, 서로의 존재가 이념의 희생물이었음을 자각하게 되는 전개는 이념에 희생된 민중으로 비유되었다.

세계사의 이분법의 체계가 가져온 전쟁과 죽음, 억압은 한스의 개인사를 통해 폭로되었다. 히틀러, 아버지, 스토크만, 그레텔이 그와 연결된 주된 인물이다. 이들과의 삶을 통해 고발되는 역사적 사건과 모순은 이념의 충돌이 원인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스의 회상을 통해 히틀러의 사상으로 드러난 국가 민족주의 폭력, 아버지와 스코트만을 통해 보여준 공산주의 가식,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 탐욕의 자본주의 역사를 비유적 세계로 보여주었다. 이들은 한스를 매개로한 인물들이나 세계역사에서 충돌한 이념의 비유적 장치가 되었다. 제국주의의 탐욕은 국가 민족주의와 충돌하고 민족주의는 공산주의와 충돌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한스와 그레텔을 통해 인간 실존의 문제를 드러낸다. 이념의 역사는 인간에게 제복을 입히는 허구적 역사였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최인훈의 희곡은 원작을 차용하는 비유적 기법을 사용하면서 극에 또 다른 비유적 장치들을 하는 극작법을 구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스와 그레텔>을 통해 한국의 분단현실을 유사한 속성으로 담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독일과 한국의 유사성은 전쟁과 이념으로 분단을 겪었다는 점이다.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쟁사에서 한국은 매우 불운한 세계사의 희생

국이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자 한 의도라 할 수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국으로의 역사,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냉전의 이념으로 분단된 한국의 현실을 세계의 문제로 보이려고 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스를 통해 보여준 비전향자의 혼란은 이념의 폭력에 진실과 거짓을 혼동하는 정체성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분단된 국가에서 개인에게 가해졌던 폭력과 상실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극은 역사적 사실이나 진실성에 접근하기 보다는 역사적 사건이 서로 부딪히고 이념의 충돌이 생기면서 정의되는 가치는 무엇인지 묻고 있다. 그 안에서 한스가 추구했던 가치를 혼돈하게 함으로써 진실을 토대로 한 가치 있는 삶은 세상에 존재하는지에 회의한다. 이상적 이념은 다른 반대쪽을 파괴해야만 하는 굴절된 것이었고, 허위적 이념 안에 개인이라는 인간의 존재가치가 상실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현재에도 국가를 지탱하는 이념은 진정한 개인의 삶을 돌볼 만한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희생을 토대로 쌓아올린 이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최인훈, 「한스와 그레텔」, 『옛날 옛적에 휘어어 휘이』, 문학과지성사, 2005.11.
그림형제, 김영규 역, 「한스와 그레텔」, 『그림형제동화전집』, 현대지성사, 1999.4.

2. 2차 자료

김수자·오향미, 「근대국가 건설기 민족주의의 변형과 굴절」, 이화사학연구소, 2008.
김승옥, 「한국 현대희곡의 전통 수용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6.2.
박미리, 「최인훈 희곡에 대한 연구적 고찰」, 『한국극예술연구』 제16집, 2002.9.
양승국, 「최인훈 희곡의 독창성」, 『작가세계』 제4호, 1990.

이상일, 「극시인의 탄생」,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 문학과지성사, 1998.
 이승희, 「최인훈의 극작 여정, 그 보편성에의 유혹과 정치적 무의식」,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10.2.
 장혜전, 「설화 소재 희곡의 특성 연구-최인훈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0.
 장혜전, 「현대 희곡의 소재 변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8.
 정수진, 「최인훈 희곡의 탈식민성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조보라미, 「최인훈 희곡의 연극적 기법과 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최준호, 「아름다운 언어로 구축된 최인훈 희곡의 연극성」, 『시학과 언어학』 1권, 2001.
 한재연, 「최인훈 희곡 '한스와 그레텔'의 꺾진성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10.
 홍진석, 「최인훈 희곡 연구」, 우석대 박사학위논문, 1996.
 M. 크랜스톤, 이재석 역, 『이데올로기의 이해』, 민족문화사, 1985.
 샤를르 A. 가벨, 여승구 역, 『루돌프 헤스와의 금지된 대화』, 삼신각, 1989.

Abstract

The fairy-tale acceptance and embodiment aspect of Choi Inhoon's play *Hans and Gretel*

Choi Durye

Choi Inhoon perceived the problem of the 2nd World War as the contradiction of idea and these collision in *Hans and Gretel* and structured it's problem. He put into the play, the intention which would reconsider the world history as combining personal experiences and historical events. He established Hans, a subject of play, into 'Rudolf Hess' existing realistically in history, thus confirmed the validity, and brought up the situation with which Germany faces into the recognition problem of world.

Hans and Gretel accepted the characteristic attribute of the fairy-tale *Hansel and Gretel* as the figurative meaning. The witch's woods and the space called jail were accepted to have the common attribute. It has figured the witch's woods as jail and Hitler's ideology tower. A liveried Hans has expressed as the distorted personage of belief by being fascinated at Hitler's idea. This was the one that criticize the uncertainty and fiction of belief, showed the belief builded on Holocaust.

Choi Inhoon devised the historical events inside the frame which the attribute of fairy tale is accepted, and structured the ideology's collision and the contradictory act . He emphasized the problem of mutual communication and severance caused by the dichotomy world to well dispose ideology's collision. The war, death and press, caused by the dichotomy system of world history, were exposed through Han's personal life history.

He showed as the figured world, the national nationalism violence revealed as Hitler's idea through Han's reminiscences, the communistic hypocrisy reveled through father and Scottman, and the avarice capitalistic history revealed through Hebrew.

In the point of that Choi Inhoon's play used the figurative technique borrowed from original play, It was discussed that *Hans and Gretel* accepted the realistic division of Korea as a similar attribute. The similarity of Germany and Korea is the point that they suffered the division as war and ideology. It could be said that Korea in world history was sacrifice nation, and this paper is to recognize this problems. In addition, Hans and 'non-convert' is the same meaning, and the violence and the loss has been shown through Hans, and thus He is asking human values more than historical facts or truth.

Key Words : figurative acceptance, ideology, dichotomy, reminiscences, division history

접 수 일 : 2011년 2월 28일

심사기간 : 2011년 3월 7일~3월 31일

게재결정 : 2011년 3월 31일